

XXII World Allergy Congress (WAC 2011)을 다녀와서

국립중앙의료원 소아청소년과
정은희

항상 학회 참석 때마다 있는 위기(학회 등록은 하였는데 참석 할 수 있을지)가 이번에도 있었지만 다행히 WAC 학회를 참석하게 되었다. 처음으로 참석하게 되는 이번 학회에는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관리과의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에 대한 소개를 초록으로 내게 되어, 포스터를 준비한 만성질환관리과의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 담당자인 서승희선생님, 서혜진선생님과 같이 참석을 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있는 학회였다.

1. 60년 역사의 WAO 학회와 KAAACI 선생님들의 활발한 학회 참여

올해는 WAO가 창립된 지 60년째가 되는 해여서 학회장에 WAO의 역사에 대한 전시가 있었다. 1951년에 IAACI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llergology and Clinical Immunology)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여 ICACI (International Congress of Allergology and Clinical Immunology)로 바뀌었다가 2000년도에 지금의 이름인 WAO (World Allergy Organization)으로 되었다는 것과 그 역사와 함께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 업적에 대한 역사도 같이 보여주어서 인상적이었다. 역대 학회 회장님들, 학회 개최지 등에 대한 포스터도 볼 수 있었는데 다음 2015년에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되어 우리나라를 알리는 멋진 포스터가 그 다음에 붙어 있게 될 것을 상상하니 기대가 되었다. 또한 우리 학회인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KAAACI)의 부스가 세워져서 2015년에 한국에서 WAC가 열림과 AAIR 저널을 홍보하고 있었고 최병휘 이사장님, 조영주 총무이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선생님들이 다녀가시면서 준비하시고 격려하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열심히 국제모임을 준비하기에 WAC 2015 행사의 성공을 벌써 예견할 수 있었다.

Interasma, Collegium Internationale Allergologicum 회의와 좌장으로 바쁘게 다니시는 김유영 선생님, WAO board of director로 활약하시는 박해심 선생님, 강의와 워크숍 진행까지 맡으셔서 내내 바쁘셨던 박춘식 선생님, 그 외 국내 여러 교수님들이 이번 학회의 강의, 좌장으로 참여를 많이 하셔서 활약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마치 국내 학회처럼 느껴지기도 하였다. 또한 KAAACI 학회의 Sister Society symposium 시간에는 문희범 선생님과 윤호주 선생님의 좌장으로 조유숙 선생님, 박홍우 선생님의 Severe asthma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가져, 우리 학회가 국제적으로 발전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WAC 2015를 준비하는 KAAACI가 단연코 돋보인 학회라고 생각되었다.

시차적응이 안되어 잠이 오는 건지 잠이 깨는 건지 모르는 시간에 아침 일찍 시작하는 Breakfast symposium에 참석을 하였는데 김규언 선생님은 벌써 일찍 나오셔서 노트 필기를 하며 강의를 듣고 계셨다. 공부는 끝이 없는 거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자극을 받아서인지(?) 졸지 않고 열심히 강의를 듣게 되었다. 소아 알레르기질환에 관한 강의를 들으러 학회장을 찾아가면 항상 맨 앞에서 열심히 강의를 들으시는 홍수종 선생님을 볼 수가 있었고, 한 강의라도 놓치지 않으시려고 이방 저방 열심히 옮기시며 강의를 들으시는 오재원선생님도 볼 수가 있었다. 학회 마지막 날에 하는 food allergy에 관한 강의를 못 듣게 되어 아쉬웠는데 마지막 날까지 food allergy 강의를 다 듣고 오셨다는 김규언 선생님과 이재호 선생님... 해외학회는 학문적인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되고, 여러 사람과의 새로운 만남을 갖고, 학회 선생님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은 것 같다.



사진1) Presidential Dinner 모임



사진 2) KAAACI/WAC 2015 부스에서

2. Haahtela 교수님과의 만남

국내처럼 민관의 협력으로 알레르기 예방관리 사업을 하는 나라로서 핀란드가 천식에 관한 국가적 차원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고 그 성공적인 결과를 학회지에 발표하는 것을 보았다. 지면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책임저자인 Haahtela 교수를 꼭 만나고 싶었다. 또 그분에게 우리의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을 소개하고 친분을 갖고 싶었다. 최근 핀란드 사업에는 그동안의 여러 실험 연구결과와 임상 연구데이터들을 제시하면서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추진전략 계획을 자세하게 논문에 소개한 것을 보았는데 이번 학회에서는 그 과학적인 근거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을 소개하고 있었다. 알레르기질환에 대한 예방으로 단순한 알레르기 원인물질의 회피보다는 집단 전체의 면역관용을 강화하는 관점에서 프로그램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는데 debate (Is the hygiene hypothesis important?) 강의에서도, workshop (Changing the allergy paradigm- Time to act)에서도 그 내용들을 들을 수 있었다. 강의 후 Haahtela 교수님을 질병관리본부 사업담당자들과 같이 만났다. 우리 소개를 한 후 이번 학회 포스터로 낸 국내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에 대해 포스터를 보여주자 이 교수님은 굉장히 놀라워하며 설명하고 있는 우리를 아주, 아주 반가워했다. 아~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질병관리본부 김영택과장님이 보건소 사업담당자들에게 항상 하는 첫 인사말)을 만난 것처럼, 아주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환하게, 아주 반갑게 웃으시면서 우리 포스터를 하나하나 보면서 내 짧은 영어에도 우리 사업을 다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 분은 우리 사업 시작시기를 물어보시며 핀란드와 비슷하다고 하였으나 핀란드는 이미 10년 전에 벌써 시작하였고 2기를 들어서지 않았느냐는 나의 반문에(나는 이미 그 내용을 논문으로 읽었기에) 놀라는 표정(아니 너? 잘 알고 있네?)으로 내 말이 맞다고 웃으면서 인정하였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하는 일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다시 연락하기로 하였다. 핀란드 사업의 공동 연구원인 Makela 교수님도 소개를 받아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 교수님도 무척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반가워하였다. 이 교수님은 우리에게 2015년에 한국에서 WAC가 열림을 상기시키면서 그때 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음을 이야기 하며 기뻐하였다. 지구 반대편에서 같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알레르기 예방관리 사업에 대한 자부심 내지는 중요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흐뭇하고 학회 기간 내내 뿌듯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 그 동안 알레르기 예방관리 사업을 맡아서 일하느라 고생을 많이 했던 서승희선생님, 서혜진선생

님의 기쁨은 나보다 더한 것 같았다.



사진3) 호텔에서 바라본 카리브해안



사진 4) 마야유적지인 치첸이사



사진 5) 카리브해안에서

3. 마야문명의 유적지이며 최고의 휴양지인 칸쿤

멕시코가 자랑하는 대규모 휴양지, 마야문명의 유적지로 유명한 칸쿤에 관광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는데 난 에메랄드빛의 카리브해안이 제일 마음에 들었다. 그러나 이런 저런 학회 일정으로 아직까지 발도 못 담그고 바라만 보고 있다고 하자 점심을 같이 먹던 장윤석선생님이 바로 옆의 바다로 들어가자며 신발, 양말을 벗어 던지고 들어갔다. (아니 이 다 큰 어른이 뭐 하는 거지?) 할 수 없이 나도 따라 들어가게 되었는데, 바라만 보던 바닷물에 바지까지 젖으며 발을 담갔을 때의 그 느낌은! 그 순간은! 정말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 있을 것 같다. 양복을 입고 바다에 들어간 장윤석선생님의 모습은 더 볼만했다.(ㅋㅋㅋ)

폐회하기 전날 저녁에 학회 참가자들을 위한 이벤트가 있었는데 멕시코의 전통음악을 들으며 마야인들의 모습을 한 사람들과 사진도 찍고 음식을 즐겼다. 여기서도 다시 Haahtela 교수님을 만나 기념사진도 같이 찍고 다음 만남을 기약했다. 그날 학회에서 좌장을 맡으신 김규언 선생님과 발표를 하셨던 이재호 선생님(그날 질문을 아주 많이 받으셨다!)이 어디서 풍선을 얻으셨는지 (?) 풍선과 함께한 두 분의 한없는, 해맑은 표정, 한국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모습을 포착하였기에 여기에 사진을 올린다.

2009년 아르헨티나에서 개최 시에는 세계에서 8000명이 참석을 하였는데 이번에는 3500명으로 줄어들었다며 글로벌 경제위기 때문인지 유럽에서 참여를 많이 안 한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 어느 학회보다 풍성하고 의미 있는 학회였다고 말할 수 있고 사진을 보내주신 박해심 선생님, 이용주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진 6) Haahtela 교수와 함께



사진 7) 멕시코의 전통음악 연주



사진 8) 다정하신 그 날의 좌장과 연자